

불성실공시 상장사 급증… “경기부진 지속에 더 늘어날 것”

지난달 18곳 지정… 전년비 5곳 ↑ 지정 시 주가 하락, 신뢰도 악영향 경기침체 때 공시관리 부실 경향 낮은 경제성장률에 기업 경영난 겪어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상증자 철회나 계약 변경 등 주요 사안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사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8곳으로 전년 동기(13곳)보다 5곳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반복·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제



/유투이미지

재 조치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반복, 공시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취소,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된 사유로 꼽힌다.

나노브릭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주주총회 소집

결의 ▲유상증자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5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오플로우와 KS인더스트리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제주맥주는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

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알멕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단기간 주가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주가가 약 15% 하락했으며 지난달 1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주맥주 역시 16%가량 떨어졌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의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작년에도 2%대 초반의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는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불

성실공시법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당해 연도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워 자금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제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도, 최대 수혜국 가능성”

현동식 한투운용 상무

이머징마켓서 경제성장 패턴 반복 PER 낮아질 것… 장기투자 유호 소비·인프라섹터 집중 전략 택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와 노동력,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춘 인도는 제조업과 소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도 관련 ETF를 출시하며 투자 기회를 확대 중이다.

인도 ETF 운용의 선봉에선 한투운용의 현동식 상무(해외비즈니스본부장)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인도는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인 성장



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무는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신흥시장)’에서 경제 성장의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이 겪었던 성장 경로를 인도 역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다. 현 상무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자본, 기술,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머징마켓 중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국가”라며 “한국, 중국, 베트남이 그러했듯 인도 역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장이 들어서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는 흐름이 반복되기에 이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상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체 생산 기지로 인도가 떠올랐다. 다만 1기 때는 인프라가 부족해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최근 10년간 모디 정부가 항만·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제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려 해도 도로와 항구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

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인도의 노동력 비용 차이도 여전히 크다. 중국의 최저임금이 370달러인 반면, 인도는 95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게 현 상무의 설명이다.

현 상무는 최근 인도 증시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됐다라는 평에 대해서는 “PER(주가수익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라며 장기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EPS(주당순이익)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PER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PER은 낮아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현재 엔비디아의 PE

R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에, 인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계획할 경우 ‘오늘의 PER’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투운용은 인도 시장에서 단순 지수 추종이 아닌 소비와 인프라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현 상무는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는 되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투운용은 ▲인프라 ▲디지털 인디아 등의 테마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도 ETF’ 출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현 상무는 “인도=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초 아래 한투운용이 최적의 인도 투자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리츠증권, 세계 최초 ‘필라덱스’ 도입

뉴욕증권거래소 차세대 호가 서비스

메리츠증권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차세대 호가 서비스인 ‘필라덱스’(PillarDepth)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필라덱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여러 아시아 증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고안해낸 최신 호가 시스템이다. 기존처럼 1개 거래소만의 호가가 아닌, NYSE 산하 5개 거래소(NYSE, ARCA 등)의 호가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 각 10개씩의 최적화된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특정 거래소와 호가 서비스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호가 서비스로는 Arca 거래소의 아카북, 나스닥의 토탈뷰 등이 있다. 반면 복수 거래소의 데이터

를 모두 종합한 호가 서비스는 ‘필라덱스’가 유일하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필라덱스’를 현존하는 가장 정교하고 종합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합 산출하기 때문에, 고객의 거래 희망가에 근접한 호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설명이다.

이 차세대 호가 시스템은 미국 주식시장의 장 시작 전 동시호가와 장 마감 전 동시호가에 대한 데이터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미국 주식시장의 동시호가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장 마감 전 데이터만 놓고 봐도 일평균 240억달러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유동성이 몰리는 시간대다.

메리츠증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 프리마켓(장전거래)과 애프터마켓(장후거래)에서도 최신 호가 데이터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설명했

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정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호가가 다양하게 제시되기 어렵지만, 메리츠증권 고객들은 필라덱스의 종합적인 호가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NYSE의 Proprietary Data(핵심 자체 데이터)를 총괄하는 앤소니자와츠키는 “이번에 메리츠가 새로운 시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의 정교함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장기적 목표는 메리츠증권만의 차별화된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한 투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과 커뮤니티, 그리고 지난 6일 론칭한 ‘미국국채 LIVE’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결합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디지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운용, 美 AI전력핵심인프라 ‘규모 1위’

개인 순매수 242억 달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 인공지능(AI)전력핵심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달 31일 개인 순매수가 242억원에 달하며 전체 ETF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순자산은 2696억원으로 전력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ETF 7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미국의 전력 생산,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전문기업 10곳에 집중 투자하며, 분야별로는 풍력발전(GE Vernova), 원자력(Constellation Energy, Vistra Energy, NuScale Power), 송배전관리(Eaton, Quantia Services),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Arista Networks, Trane Technologies, Vertiv Holdings, Emcor Group) 등이다.



/삼성자산운용

지난해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중국 ‘딥시크’ 영향으로 AI인프라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지만, 미국의 고질적인 전력생산 및 인프라 부족 상황과 전력 수요 산업의 향후 비약적 발전 흐름을 감안했을 때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원관희 기자